

팔만사천법문을 한 손에

대불청, '우리말 팔만대장경' 개정판 간행... 어투, 표기법 현대화



대불청 정우식 회장은 3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대표 박길수)과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1963년 대불청 성전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개정판을 출간키로 했다.

반세기전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개정 간행된다. 새롭게 간행되는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팔만사천법문을 한 손에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1963년 대한불교청년회성전편찬위원회에서 편역한 '우리말 팔만대장경' 간행사업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이하 대불청)와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대표 박길수)이 함께한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1963년 대한불교청년회성전편찬위원회에서

편역한 책으로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도제양성, 역경, 포교 3대 사업의 하나로 이뤄진 대작불사다. 종단출범 이후 대불청은 만해 스님의 뜻을 이어 성전편찬위원회를 조직해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당시 성전편찬위원회 위원장직에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당시 성전편찬위원회 위원장직에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당시 성전편찬위원회 위원장직에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당시에도 '우리말 팔만대장경' 편찬작업은 전무후무한 대동참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오래전 절판된 상태로 대불청 회원 중에도 이 책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던 중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박길수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소장해 오던 이 책의 내용과 문체 등이 당시 출간한 것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것을 보고 지난 1월 대불청과 함께 개정판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상언 기자

특히 올해가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의 해인만큼 한글대장경 개정판 간행의 의미는 컸다. 개정판은 원문에 누락된 내용을 보충하고 어투와 표기법을 현대화한다. 또 본문이 축약돼 원전 연구성 부족, 정본(正本) 정확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해제는 진현종 작가가 맡는다. 개정판은 1400쪽 내외로 7월 경 발행될 예정이다. 원본 판제 및 내용을 최대한 살리고 고유명사 표기, 맞춤법 등을 현대화하게 된다.

대불청 정우식 회장은 "한글로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간행된 지 48년이 되는 역경사업이었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나오기 전 후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이 간행된 것으로 교두보 역할을 한 의미 깊은 책이다. 책 개정으로 역대 스님들의 뜻을 이어 보다 많은 이들이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저자인 진현종 작가는 "전시용이 아닌 신행과 연구생활에 기본적으로 상비해야 할 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장경 역경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경전의 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 종단 차원에서 역경사업을 공적 인 의제로 통합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언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빛자루질 하나에도 부처님 가르침 담아"

조계사 원심회 자원봉사자 김 오 복 씨



조계사 원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오복 씨(58·사진)에게 자원봉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매일 출근하듯 원심회를 방문해 청소, 한지 연꽃 만들기,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원심회 봉사활동에는 언제나 그가 있다.

"원심회에 와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봉사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소한 일도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만큼 중요한 활동이 어디 있었어요?"

김오복 씨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찾아와서는 빛자루 들고 청소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격려했다. 봉사활동을 하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면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봉사활동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김 씨의 생각이다.

10년 전 조계사에서 만발식당 설거지와 병당 청소 등을 하면서 봉사를 시작한 김오복 씨는 3년 전부터 원심회와 인연을 맺고 함께하고 있다.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는 모습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원심회에서 빛을 발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는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위해 수화를 배우고 있다. 늦은 나이에 무엇을 새로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남을 위한 일에 헌신적인 김오복 씨는 사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뇨로 시력이 많이 저하됐고, 퇴행성 관절염, 대상포진 등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으면 아픈 몸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았다며 집에 있기를 거부했다.

"밖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저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할 만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즐겁고 마음이 편해

지는 것 같습니다."

김오복 씨는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특별히 경전 공부나 교리 교육을 받지 않았다. 평범한 다른 보살님들처럼 법당을 찾아 불공을 드리고,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년간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러자 본격적으로 교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씨는 작년부터는 봉사활동만큼이나 경전 공부에 푹 빠져 있다.

이처럼 봉사활동을 포함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오복 씨에게 원심회는 2010년 모범 신도상을 수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부탁했다.

원심회는 요즘 한지 연꽃 만들기 등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김오복 씨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원심회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김 씨의 손은 실 틈이 없다.

"봉사를 통해 불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부처님의 고행이 중생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봉사활동과 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기범 기자

수도권 복지시설 유치 잇따라

성남·광명시 교세 취약지역 포교발판 마련

경기도 성남시와 광명시 등 교세가 취약한 수도권 지역에 불교계 복지시설이 운영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장 송은)은 4월 7일 성남시에 위치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자리잡은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식당, 다목적 교육프로그램실, 상담실, 주·단기보호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은 또한 11일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시작한다.

철산복지관은 3월 위탁 법인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장 송은)에 의해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전문적 경험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노인의 사회참여, 건강 및 케어체계 구축 등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중심의 자립형 복지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아은 기자



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4월 6-17일 서울실버갤러리 '고운남'에서 기념전시회 '서울노인복지센터 역사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세대 및 지역사회에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상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어르신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일상사진 전시, 기념품 및 홍보물 전시, 영상전시 등 센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이아은 기자

더프라이스, 지진피해 구호 모금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이사장 범등)가 미얀마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펼친다. 더프라이스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해 진행된다.

미얀마는 3월 23일 규모 6.8의 지진으로 80여 명이 사망하고 400여 채의 가옥과 10여 채의 사원 등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070-7596-9988

조동섭 기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양성평등 교육 진행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 상담소는 4월 28-29일 5월 6·12·13일 오전 10-오후 3시 성인지 감수성 훈련, 색수업의 이해, 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이해, 성인 지적 관점 성교육,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한다.

4월 26일-6월 21일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진행하며 수강료는 30만원이다. 강좌는 한국 MBSR 연구소(www.mbsrkorea.com) 안희영 소장이 직접 진행한다.

(02)732-1367 이상언 기자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 결과 발표

올해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에 6개 단체가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4월 4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더프라이스' '사찰생태연구소' '위드아시아' '함께하는 세상' '합천평화의집'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심사는 사업의 이목적과 내용의 적절성 스펙트럼과 기대효과와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박기범 기자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의 결사

제13회 경로큰잔치

모시는 말씀

산천에 생명력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에 범향 가득하고 봄꽃 만발한 이곳 청룡암에서 어르신들과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부족한 음식과 작은 여흥을 준비했습니다.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뜻 깊은 경로잔치에 부디 걸음하셔서 삶의 고통을 잠시 떨치시고 즐거운 시간 되소서...

불기2555년 4월 좋은 날
주지 중현 합창

언제 불기2555년 4월 23일(음 3. 21) 토요일 오전 11시

어디서 청룡암 도량 내(울산 북구 매곡동)

어떻게

- 점심공양 : 떡, 다과, 음료, 기타
- 문화공연 : 경기민요단, 고전무용단, 가요, 풍바, 풍물놀이패
- 기념선물 증정

문의 (052)282-2800~1
* 차량운행 : 북구 신천동 사거리 ↔ 청룡암 / 승합차 수시운행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말사 동대산 청룡암
울산시 북구 매곡동 산35번지 (052)282-2800~1 www.chungrong.org

바른정법. 바른인연 Ⅲ

아직도 말을 붙이고, 화두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연재준 세상에 몸을 나누실겁니까?
우리는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방송되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응의 배경은 육적(육적 도적)을 가시발길과 불구덩이에 머무는 바 없이 단정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직자로서 실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것이 아랍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믿음도 가르침도 꼭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하는 그선봉에 성직자가 당연히 실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한담하고, 어려운 문자나 난해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불교인 양 비쳐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절집은 세계 최대 부처님 조성에 경쟁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절집을 키우고, 납골당을 짓고 부처님 목속 법당이나, 00신도도량이나, 00영험도량이나, 00알바위 도량이나 등등..... 불교의 주인공은 바로 '나' 라는 것에서부터 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영험 신통 도량이라니..... 또, 법당안을 들여다 보면 큰 등 무엇이 며, 작은 등 무엇이인지..... 법당이라 함은 '법이 있는 집'이란 뜻인데, 법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인등을 비롯해서 각종 등을 켜는 비용과 산으로, 바다로 방생을 함당 시고 쓰이는 비용과 성지순례 한다고 국내외로 부처님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 다니지 말고, 그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수술편이 없어서 병고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찾아 '인간방생'을 하십시오. **어떻게** 지..... 그 베품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 절대 자랄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타인이 알아주기 위해 하는 것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이러한 가르침의 바탕에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직자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중생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장회해 선사와 같이..... 그는 실천수행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시, 앞서서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말에 빠진지 오래고, 말로는 불, 조사를 뛰어 넘고 있지 않는가?

이 도리를 찾고 저 도리를 찾고, 이 뭐고? (이 무엇이고?) 말고 무엇이 있는가? 요즘은 어느 게그프로에 나오는 유행어를 인용하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철주야 불러보니 부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보입니까? 우리는 **불보살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 실천적인 수행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도덕, 바른생활을, 또 국민윤리를 공부한 기억이 다 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다른 바가 있겠는가? 다만 실천하지 않기에 어려웠을 뿐이다. 그럼, 왜 말로는 실천을 얘기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불합시다. 다들 성불하셨나요?
성불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이익되게 --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성불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 그것은 방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시발길을 걸으신지 6년만에 성불하셨다고 하지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심은 물론, 육신통을 얻고 나서 중생의 곁에서 고통을 이루면서 주사다 가셨는데.....

자, 부처님은 6년 수도 끝에 여섯가지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님이, 법님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몇몇이나 얻었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남기고 가신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부처님 보다는 성불하는 시간이 빨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각각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무엇인지.....

모든 가르침은 식, 답이 없다..... 앞서서 식, 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행원보살로써..... 실천수행자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증)인 것입니다.**

불 . 법 . 승 . 정법 . 실천도량
주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 (055)633-6555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등